

폭염장사(暴炎壯士) 고상식계사



곽 춘 옥 대표이사
(주)건지
중국건지농목기계유한공사 동사장

세계 기후환경의 급변에 따라 지역마다, 나라마다 감히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어느 곳에서는 너무 가물어 물이 없고, 어느 곳은 홍수로 인명피해와 더불어 집도, 차도 모두 떠내려가거나 흙더미에 묻혀버리고, 또한 지구 반대편에서는 때마침 폭설이나 우박으로 농작물피해는 물론 교통두절, 정전사태 등 정말 흉두께같은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금년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되지 못하고 한여름의 폭염으로 열대야현상은 물론 정말 과거에 기록되지 않았던 폭염으로 생활의 어려움은 물론 우리 축산업계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가져왔다. 가축들의 대량폐사와 생산성

저하가 크게 나타나 그렇지 않아도 사료값에 시달리는 농가들에게 희망을 앗아가 버렸다. 정말 어찌하란 말인가!

더 고통스러운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구의 온난화현상으로 이러한 급변하는 기상이변과 고온현상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것이고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가 아열대성기후군에 속해 있지 않느냐는 공공연한 예측을 하곤 한다. 의사소통만 된다면 물고기나 철새들에게 물어보면 속 시원히 알 수 있으면만. 그들은 인간보다도 더 예민한 감각기관으로 미리 자연을 예측하고 자리이동을 하는데...



〈사진 1〉 고상식계사 농장전경

가까스로 지난 겨울작업으로 완공한 고상식계사(사진1 : 길이 90m×폭 16m 2동)에 더위가 무르익을 지난 7월 11일 50,500수의 병아리를 2차로 입식했다. 1차 입식 때는 공사가 마무리가 덜 된 상태에서 입식되어 여러 가지 이유로 사육성적이 매우 좋지 않았다. 역시 설익은 감이 났었던가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열업체와의 약속시간이 임박하여 계분처리장치와 출하설비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역시 서둘러 2차로

〈표 1〉 사육성적표

입추일	7월 11일
입추수(수)	50,500
출하일	8월 12일~13일
출하일령(일령)	33.5
출하수(수)	49,223
출하율(%)	97.47
총출하중량(kg)	82,475
평균출하중량(kg)	1.675
총사료공급량(kg)	131,260
사료요구율(%)	1.59
생산지수	306.5

입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날이 7월 11일 이고 그 이후의 날씨는 이미 언급했듯이 폭염으로 온통 수난을 겪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밤에도 30도를 오르내리고 한낮에는 40도를 전후한 날씨에 닭은 물론 사람도 몸살을 앓을 지경이었으니까.

한편에서는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았으나 이미 결정된 일을 어찌 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놈들이 밥값을 하려는지 꾸역꾸역 잘 자라며 입추초기의 폐사도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당초부터 고상식계사에서 폭염으로 인한 일사병이나 열사병은 고려하지도 않았던 터라 크게 우려하지 않았지만 급격한 외기온의 상승은 설마하는 조바심을 갖게 하기에다 충분했다. 다행히 세심한 관찰과 환기설비 및 쿨링시스템의 적절한 사용으로 닭들은 언제 더위가 있었느냐는 듯이 씩씩하게 커주었다.

그럴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상식계사가 바닥으로부터 일정한 유격으로 떠있기 때문에 자체 대류현상에 의한 공기의 순환이 발생되어 체감온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평사의 깔짚에서 품어내는 발효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있기에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 속칭 냉방장판 위에서 선풍기를 틀고

있는 격이라고나 할까.

실질적으로 7일령 이내의 초기폐사를 제외하고는 폐사율이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는데 다만 27일령 이후에 약간 늘어난 폐사는 외기온과 SDS(Surden Death Syndrome 급성 폐사증후군)가 복합된 것이 아닐까 판단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통상 4주령 정도부터 SDS증후군이 심하게 나타나 대형닭

으로 키우기 어려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남들이 그 폭염에 허덕이며 심지어는 대량폐사가 발생하여 여기저기에 묻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그래도 이러한 성적으로 키워냈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성적을 거두었고, 그 결과치는 당시 계열업체에서 사육한 닭들 중 가장 성적이 좋았다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다.



또한 출하한 닭에서 지루는 물론 배꼽닭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최고의 등급을 받았다는 것이 고상식계사의 차별화를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다. 실제 고온하절기에는 닭이 물도 많이 먹지만 바닥에 흐르는 물도 적지 않아 계사바닥이 습하고, 그 결과 배꼽닭은 물론 지루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 비해

〈사진 4〉에서 보듯이 고상식계사에서 사육한 닭은 마치 방금 목욕을 시켜놓은 것 같이 정말 깨끗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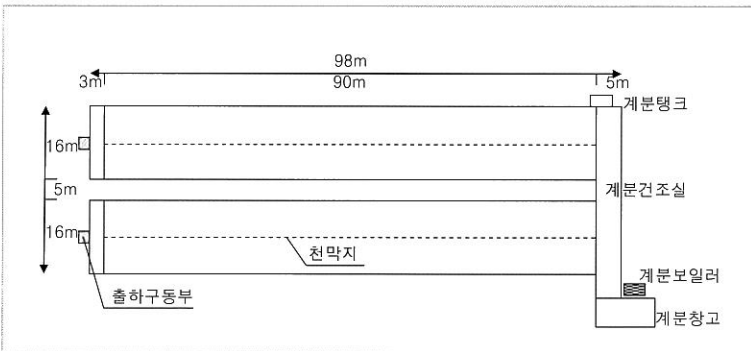


〈사진 4〉 출하직전 닭가슴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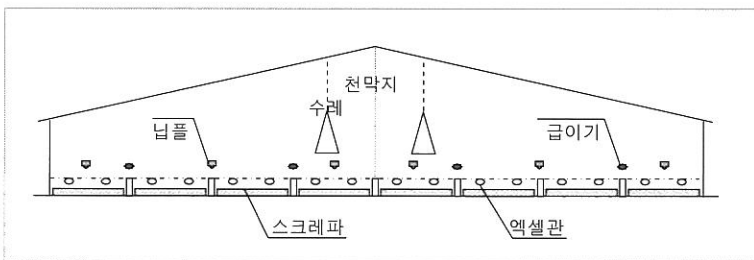
이번에 사육한 고상식계사는 1동은 전면 PP망(사진 2)을, 다른 1동은 전면PP슬랫(사진 3)을 설치하여 성적을 비교하고 있는 중이다. 이미 중국에서는 물론 일본에도 수출하여 호평을 받고 있는 PP망 고상식계사가 내구성을 염려하여 플라스틱으로 개발해달라는 일본측의 요청에 따라 PP슬랫을 개발

했으나 자체검증을 거치고 난 뒤 그 결과치를 발표하고자 하는 뜻에서이다.

아무튼 폭염에도 깨끗한 성적을 거둔 고상식계사가 갈수록 기형적으로 변화하는 기상이변에도 더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 확신하고, 또한 부분육과 대형닭시장이 급성장함에 있어 고상식계사가 대안이 되어 우리나라 양계산업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 🐔



〈그림 1〉 고상식계사 평면도



〈그림 2〉 고상식계사 입면도